



'80년대 댄싱 머신' 박남정 컴백 “은퇴 안했으니 음악활동 해야죠”

13년만에 새 앨범 발표... 발라드 '멀리 가요' 선공개 “아직 춤추는 데 문제 없지만 훗날 준비해야죠”

1980년대 후반을 주름잡은 '댄싱 머신' 박남정(51·사진)은 처음부터 댄스 가수가 꿈은 아니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8년간 선명희 어린이합창단으로 활동해 미국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등 국빈이 방한할 때면 청와대에서 공연했다. 춤보다는 비디즈, 레이프 가렛, 조지 마이클, 조용필 등의 노래 가사를 달달 외고 다녔다.

변성기가 찾아오자 그는 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고교 2학년 때 영화 '플래시 댄스'를 보고서 주인공 제니퍼 빌스의 춤에 반해 스트리트댄스에 빠져들었다. 노래도 한 가닥 했으니 고교 졸업 즈음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다.

지금처럼 방송사와 기획사의 오디션 시스템이 없어 데뷔할 길은 막막했다. 1987년 MBC 합창단에 수습으로 뽑혀 활동한 지 3개월, 작곡가 안치행의 기획사에 스카우트돼 가요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1988년 1집 '아바람이여'로 데뷔와 동시에 인기 가수 반열에 올랐고, 2집 '널 그리며' 때는 '그녀' '열굴' '열과 아래를 오가며' '그녀'를 그리는 동적)과 무대를 미끄러지듯 현란한 발동작으로 선풍적인 히트를 했다.

최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만난 박남정은 30년 전의 기억을 생생하게 꺼내놓았다. 강산이 세 번 변했지만 세월을 거스른 듯 동안 외모는 여전했다.

그는 “그 시절엔 춤추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안일하면 뒤떨어지는 경쟁 시대가 아니었다”며 “트레이닝 시스템도 없어 배울 때가 없으니 나이트클럽 가서 배우고 외국 댄스 영상을 보며 익혔다”고 회상했다.

“‘널 그리며’에도 원래 안무가 없었어요. 방송 리허설 때 제가 즉흥적으로 ‘그녀’ 동작을 하자 스태프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해본 게 포인트 춤이 됐어요. ‘사랑의 불시착’의 ‘조각조각 춤’은 ‘널 그리며’ 때 KBS 무용단이 하던 안무를 붙였어요.”

‘원조 댄싱 킹’인 박남정은 지난 13년 만의 새 앨범을 발표한다. 그 신호탄으로 이달 프로듀서 돈스파이

크가 편곡한 선공개곡 '멀리 가요'를 선보였다. 그는 “가성 가수들이 음반을 내면 ‘저렇게 내면 뭐 하나’란 생각에 흐지부지 보냈다”며 “그러다가 누가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가요계를 은퇴하지 않은 이상 내 나름의 작품 활동을 하는 게 맞다고 여겨졌다”고 오랜만의 컴백 이유를 밝혔다.

데뷔와 함께 영광이 찾아왔고 상처받을 만한 굴곡도 없었지만, 그의 활동은 꾸준하지 않았다. 1995년 6집 '멀어지는 너'를 끝으로 9년의 공백을 보냈고 2004년 7집 '가자마'로 컴백했지만 다시 13년간 신곡 소식은 없었다. 딸 시은이와 SBS TV '스타 주니어쇼 붐어빵'과 JTBC '유자식 상팔자' 등에 출연하고 간간히 행사와 공연 무대에만 올랐다.

“돌아켜보면 1990년대가 좀 힘들었어요. 안치행 작곡가의 기획사와 1990년 4집 '여인이여'까지 낸 뒤 헤어졌죠. 그때 수억 원의 제안을 뿌리치고 즉흥적으로 그만하겠다고 했으니 은퇴 아닌 은퇴 선언을 했어요. 1999년 결혼해 두 딸이 태어났고 교육용 영어 CD 사업도 했는데 손맛을 봤죠. 최고인 줄 알았지만, 세상을 잘 몰랐어요.”

그는 새롭게 활동하겠다는 의지로 기획사 NJP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가수로서 수동적으로 움직였다는 반성에 이젠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그는 4곡이 수록된 미니앨범 출시에 앞서 발라드곡 '멀리 가요'를 공들여 작업했다. 완성도를 위해 몇 개월에 걸쳐 음원을 만들었고, 평소 취미로 영상 작업을 해 뮤직비디오 콘티와 편집까지 직접 관여했다. 영원히 남는 작품이 될 것이란 책임감 때문이었다.

발라드곡을 먼저 내민 건 여러 이유가 있다. “댄스 가수 이미지가 강할 뿐 과거에도 발라드를 꽤 불렀어요. 이번에도 타이틀곡은 댄스곡이 되겠지만 함께 나이 든 팬들에게 먼저 감성적인 노래로 다가가고 싶었어요. 또 아직은 춤을 추는데 문제 없

만 때문 신호가 오죠. 차도 수명이 있듯이 훗날 바꿀 차를 미리 준비해야죠.”

심기일전한 그를 도운 건 돈스파이였다. KBS 2TV '불후의 명곡'에 '전설'로 출연했을 때 바다가 부른 '사랑의 불시착' 무대를 보고 돈스파이의 편곡에 감탄했다고 한다.

그는 “편곡된 '사랑의 불시착'을 듣고 이렇게 새로 태어날 수 있구나 '쇼킹'했다”며 “연락처를 수소문해 돈스파이에게 제안했고 공동 프로듀서가 됐다”고 말했다.

내년 데뷔 30주년을 맞는 그는 앞으로 2시간을 알차게 채울 공연을 올리고 싶다고 했다. 6월부터는 소극장 공연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갈고 닦아 자신의 브랜드 콘서트를 일구겠다는 생각이다.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마술 등 여러 콘텐츠를 가미해 버라이어티한 무대로 꾸밀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목과 체력 관리에 부쩍 신경 쓰고 있다고 한다.

“나이는 굳이 생각 안 하는데 목이 원래 잘 잡기는 스타일리어서 성대 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요. 또 마음을 좀 채우고 싶어서 중1인 둘째 딸 방에 가서 동화책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젊은 날 책을 별로 읽지 못했거든요. 하하.”

연협뉴스



박남정이 컴백을 준비하며 춤 연습을 하고있다.

이동건-조윤희 “우리 부부됐어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인연 “결혼 준비 중 ‘새 가족’ 생겨”

KBS 2TV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로 인연을 맺은 배우 이동건(37)과 조윤희(35)가 실제 부부가 됐다.

두 배우의 소속사는 2일 “이미 서류상으로 법적 부부가 된 상태”라며 “또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 생명이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동건도 소속사를 통해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2세를 기다리고 있다”며 “여러분의 격려와 축복을 받고 싶다. 앞으로 더 좋은 배우,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내용의 소감을 전했다.

예식은 이동건이 출연하는 KBS 2TV 새 드라마 '7일의 왕비'를 마치고 나서 치를 예정이었다. 이동건과 조윤희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종영 후인 지난 2월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이동건은 1998년 가수로 연예계에 데뷔, 드라마 '광개'로 연기에 입문했으며 '파리



이동건·조윤희 부부

의 연인 '스마일 어게인' '슈퍼대디 열' 등에 출연했다. 조윤희는 2002년 시트콤 '오렌지'로 데뷔, '소프트 라이트' '닐름꽃 필러' 등 '당신' '나인 : 아홉분의 시간여행' '파리 부는 사나이' 등으로 인기를 얻었다.

연협뉴스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유시민·유희열과 떠나는 인문학 여행

나영석 PD 신작... 이달 편성

tvN의 나영석 PD(사진)가 금요일 밤 방송 중인 예능 '윤식당'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작곡가 유희열을 내세운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을 선보인다.

tvN 관계자는 2일 “새 프로그램은 여행과 인문학이 결합한 콘셉트”라며 “‘윤식당’이 종영한 후 5월 중·하순에 편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유시민과 유희열 외에도 추가로 초대할 출연진이 있는지 구상 중이며, 섭외를 마치는 대로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협뉴스



TV 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훈남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부처님오신날 기획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아임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소셜 (그 여자의 바다) 40 살림하는 남자들	30 MBC 생활뉴스 55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10 부처님 오신날 특집 좋은아침
10	00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45 살림하는 남자들	55 무한도전 스페셜	10 SBS 뉴스 20 언니는 살아있다 스페셜
11	00 부처님오신날 특집다큐 (천년의 풍경 천년의 위로 마곡사) 50 감성톤 고맙습니다 스페셜	50 15주년 기획 해피 투게더 스페셜		
12	00 KBS 뉴스 10 부처님오신날 기획 한국인의 발상		20 라디오스타 스페셜	
1	00 제19대 대선 후보자 경력방송 05 세계는 지금 스페셜 25 우리말 겨루기 (재)	00 아버지가 이상해 (재)	40 MBC 뉴스 50 MBC 스포츠 2017 KBO 리그	20 판타스틱 듀오 2
2	15 부처님오신날 기획 이웃집 찰스			30 SBS 뉴스 40 주먹쥐고 뱃고동 (재)
3	05 TV소셜 진풍경 (재)	10 300회 기획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50 런닝맨 (재)
4	05 부처님오신날 기획 KBS 스페셜	50 대한민국 토크쇼 안녕하세요		55 쿿속말 (재)
5	00 KBS 뉴스 10 가정의달 특선 동물의 세계		30 MBC 뉴스 4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20 2TV 생생정보		05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55 닥터 365
7	00 KBS 뉴스7 15 부처님오신날 특집다큐 (꽃귀이 스님들의 산중일기)	50 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00 제19대 대선 방송연설 더불어민주당 연설일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5 제19대 대선 방송연설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미스터리 링크쇼 123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제19대 대선 방송연설 국민의당 안철수후보
9	00 KBS 뉴스9			15 영재발굴단
10	00 제19대 대선 방송연설 20 시사토론 10	00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	00 수목드라마 (자제발광 오피스)	00 가정의 달 특선영화 (굿바이 싱글)
11	15 KBS 뉴스 25 문화의 향기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2	15 동행	23 특선 영화 (극비수사)	40 MBC 뉴스 24	15 나이트라인 45 2017 진도 신비의비대길 축제기념 KBC축하쇼

EBS1	
05:00 양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동남아 섬 기행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플라워링 하트(1)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웬스 08:00 당동당 유치원 1~2 08:30 똑딱맨(재)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파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엠마 캐리더(재)	09:30 물랑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원장 국수, 말린 도토리묵볶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초대석(재) 13:40 극한직업(재)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기탐험대
15:20 마사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파지(재) 16:45 똥똥똥 유치원 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 17:30 로보카 폴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어벤저스: 울트론 레볼루션 19:30 EBS 뉴스 19:55 메디컬 다큐-7요일(재) 20:50 세계테마기행	<천국보다 타히티 - 폴리네시아의 뿌리 후아히네> 21:30 한국기행 <봄나물열전2 - 우리들은 새싹이다> 21:50 EBS 다큐 프라임 <천불천탑의 신비, 미안마 - 황금의 전설> 22:45 극한직업 <죽방림 열치잠이>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채널e 24:30 EBS 초대석 <선재 스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3일(음 4월 8일 庚寅)
子	48년생 안전하지 않다면 잠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60년생 이는 길도 물어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72년생 현실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84년생 원칙과 기본을 중시한다면 안전함을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3, 76	42년생 기로에 서게 되리라. 54년생 때가 아니니 물러나서 기다려라. 66년생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곤혹스러움이 보인다. 78년생 절제하지 않는다면 순간적으로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 90년생 때와 장소를 가려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25, 83
丑	49년생 모두가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61년생 방심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 73년생 기본적인 관리를 잘한 기만 무탈하라. 85년생 종류와 형태에 따른 번수의 폭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58, 21	43년생 예견된다면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55년생 격식에 맞아야 제 빛을 발휘하라. 67년생 제3의 요소가 개입되면 복잡해져 기만 된다. 79년생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으니라. 91년생 근면함이 복을 부른다. 행운의 숫자 : 64, 72
寅	50년생 절실히 필요하다면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생생적이다. 62년생 이루어 놓고 말해도 늦지는 않으니 입을 꼭 다물어라. 74년생 조정해야만 할 불거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86년생 현실에 충실 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76, 23	44년생 고귀함을 이루는 마당이 펼쳐질 수도 있다. 56년생 시종 일관 방심하지 않고 조심만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 68년생 훨씬 앞당겨져서 처리되는 세계이다. 80년생 모르고 있었으면 더 나은 뻔한 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52, 01
卯	51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63년생 겉보기와는 달리 쉽지 않은 앓을 것이다. 75년생 두고두고 고민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라. 87년생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하라. 행운의 숫자 : 96, 02	45년생 현재의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머지않아 행운이 따른다. 57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69년생 거점을 확보하는 단계에 도달할 것이다. 81년생 회구한다면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34, 65
辰	52년생 괜히 나섰다 가는 이상한 입장이 될 수도 있으니 잠자코 있는 것이 나을 것이다. 64년생 기발한 발상이 필요한 때이다. 76년생 적극적인 참여가 보람을 가져다준다. 88년생 준수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63	46년생 소상하게 알기 전까지는 발설하거나 속단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58년생 무리 없이 잠재우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70년생 꿈이나 그려왔던 이상적인 것을 우연히 마주칠 수 있다. 82년생 약속되어 있는 것이나 마친가치이다. 행운의 숫자 : 05, 74
巳	53년생 상대적인 번수가 나타나서 예상 밖의 판도를 구성할 수도 있다. 65년생 뒷방이 나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77년생 자신감부터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89년생 진보하지 않는다면 무탈할 것임에 틀림없다. 행운의 숫자 : 38, 27	47년생 다양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이다. 59년생 욕망을 가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71년생 모순점이 보인다면 확실히 배제하라. 83년생 속단은 금물이니 깊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5, 19